

기아 (000270)

본업과 미래 사업에서 모두 기대되는 26.2H

26.2Q Review: 매출액 33.0조원, 영업이익 2.6조원

기아 26.2Q 실적은 매출액 33.0조원 (+12.6% YoY), 영업이익 2.6조원 (-4.9% YoY, +8.0% OPM) 등을 기록했다. 26.2Q 동사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2.6%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6% 하회했다 [iM증권 추정치: 매출액: 32.4조원, 영업이익 2.7조원]. 주요 구성 요소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P: 26.2Q 주요 평균 환율은 원/달러, 원/유로 각 전년 동기 7.0%, 9.8% 증가하며 우호적 환경 지속. 26.2Q 미국 소매, 전사 하이브리드 판매는 각 22.3만대 (+10.2% YoY), 17.8만대 기록 (+106.1% YoY, 29.4% QoQ). 특히 26.02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트림을 판매 중인 텔룰라이드의 이익 기여도 높음 (26.2Q 텔룰라이드 판매대수 37,614대, HEV 믹스 52.6%). 26.2Q 기아 연결, 내수 ASP는 전년 동기 대비 각 7.9%, 2.8% 증가.
- ② Q: 26.2Q 도매 판매 85.2만대 (+4.5% YoY)를 기록했고, 주요 지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26.2Q 도매 판매 YoY, 미국 -1.1%, 유럽 +10.0%, 인도 +19.3%). 미국의 경우 전년 동기 높은 기저의 영향이 컸고, 유럽: EV2~4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세그먼트 차량 판매 호조, 인도: 셀토스, 소넷 등의 판매 호조를 통해 B 세그먼트 이하 차량 중심의 산업 수요 대응. 무엇보다 엔진 밸브 부품 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이 그룹사 대비 미미했고, EV 중심의 국내 시장 성장 기록 (국내 도매 판매 +8.6% YoY).
- ③ C: 26.2Q 관세 비용의 경우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25.2Q 0.7조원, 25.3Q 1.2조원, 25.4Q 1.0조원, 26.1Q 0.7조원). 단 기말 환율 상승, EV 중심의 신차 출시 영향으로 판매보증비 0.9조원 발생 (+26.6% YoY, 매출액 대비 비중 25.2Q 2.4% → 26.2Q 2.7%). 26.03부터 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관찰되고 있고, 이에 26.2Q 기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14.9%, 9.7% 증가.

연간 이익 가이드선 달성 유무도 결국 EV와 HEV에 달려있다

기아는 26.04 CID 행사 당시 시장에 밝힌 2026년 실적 가이드선을 유지했다 (매출액 122.3조원, 영업이익 10.2조원 +8.3% OPM). 해당 가이드선 중 외형 성장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다. 그룹사나 기타 경쟁 업체 대비 비교해도 주요 권역에서 외형 성장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이다. 단 이와 같은 외형 성장 중 상당 부분이 EV 판매 증분에 따른 결과인데, 이와 같은 EV가 아직까지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 가이드선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분명 존재한다.

26.2Q 기아 친환경차량 판매는 29.5만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10.9만대가 EV로 구성된다. EV가 HEV 대비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본적으로 ICE나 HEV 대비 판매보증비를 쌓는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둘째, EV 산업 수요는 서유럽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시장은 중국 EV 업체와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이에 공격적인 프로모션 정책이 불가피하고, 인센티브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단 기아는 유럽 권역에서의 인센티브가 높아지되,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고 무엇보다 EV2, EV4 등의 25.4Q 이후 출시된 신규 EV의 판매 볼륨에서 26.2H 본격적으로 발생될 물량 효과가 여러 비용 증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6.06 이후 HMGMA에서 스포티지 HEV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증산 속도에 따라 HEV 이익 기여도 또한 시장 기대 대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Company Brief

Buy (Mai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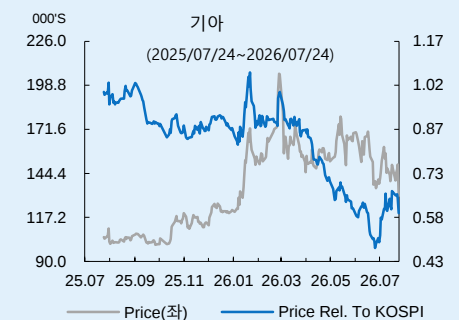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40,000원(유지)
증가(2026.07.24)	130,500원
상승여력	83.9%

Stock Indicator

자본금	2,139십억원
발행주식수	39,041만주
시가총액	50,949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9.0%
52주 주가	100,200~206,000원
60일평균거래량	1,415,053주
60일평균거래대금	228.5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5	-14.9	-15.9	25.4
상대수익률	16.9	-18.2	-51.1	-84.0

Price Trend



FY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십억원)	114,141	124,895	130,318	137,362
영업이익(십억원)	9,078	10,105	10,987	12,162
순이익(십억원)	7,561	8,434	8,913	9,782
EPS(원)	19,111	21,603	22,831	25,057
BPS(원)	156,726	174,003	192,508	213,239
PER(배)	6.4	6.0	5.7	5.2
PBR(배)	0.8	0.7	0.7	0.6
ROE(%)	12.9	13.1	12.5	12.4
배당수익률(%)	5.6	5.0	5.0	5.0
EV/EBITDA(배)	2.4	2.0	1.6	1.1

주: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자동차/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nsec.com

그룹 차원의 신사업 낙수효과는 기아에게도 당연히 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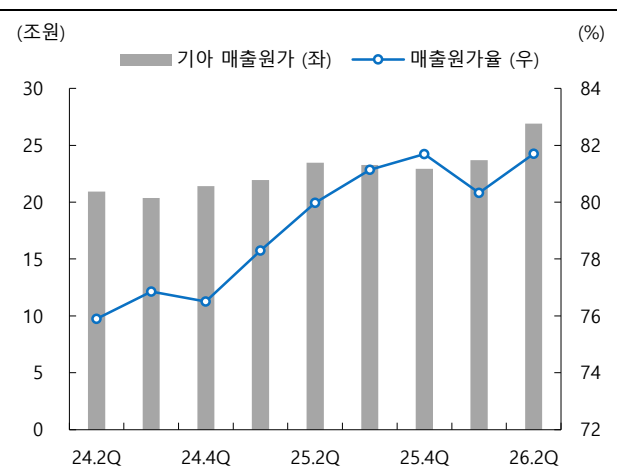
연초부터 관찰된 국내 자동차 섹터 주가 상승 구간에 사실 기아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룹사와의 Multiple 괴리율은 한때 35%까지 확대된 바가 있다. 최근 수급 쏠림과 변동성 확대라는 섹터 외 요인으로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주가가 조정 구간에 돌입했는데, 향후 섹터 반등 국면에서 기아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리는 기아는 그룹사와 마찬가지로 SDV~ Boston Dynamics 등의 신사업 관련한 여러 수혜가 관찰될 업체라는 것이다. 단 26.1H 내 이와 같은 논리가 대두되지 못했던 이유는 관련 미래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후술할 26.2H에 관련 타임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또는 여러 부문에서 개발이 진행될수록 '기아 또한 그룹 단위의 미래 사업의 수혜 업체'라는 논리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현대차그룹 단위에서의 미래사업 관련한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투자자들은 CES 2026 이후 유의미한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나,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지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미래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 (SDV 데모카, Atlas 생산)를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은 26.2H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① SDV 및 자율주행: 1) nVIDIA의 플랫폼 (Sensor Fusion)을 탑재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출시해 이를 통한 데이터 수집 구조를 구축한 후, 2) 양산차량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해 42Dot과 AVP본부이 중심이 되어 개발 중인 SDV, 자율주행 자체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겠다는 투 트랙 전략 고수. 28년 양산차량 SDV 적용, 29년 L2++ 차량 출시 목표.
- ① Boston Dynamics: 2028년까지 3만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양산 관련 로드맵 유지, Boston Dynamics형 액츄에이터 제품 31개 수주에 성공했으며, 26.11 시제품 공급을 목표. 액츄에이터 공급망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 또한 변경 사항 없음.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보틱스 사업, 생산을 총괄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이는 단순히 Boston Dynamics의 Atlas 뿐 아니라, 기타 제품군과 현대차그룹 단위의 로봇 파운드리 등의 신규 로보틱스 사업 또한 고려한 것으로 판단.

기아 목표 주가 240,000원 유지. 추가 상승 여력 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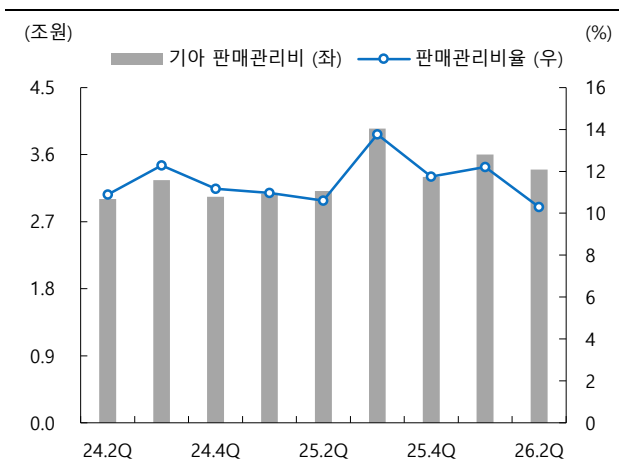
기아 목표주가를 240,000원으로 유지한다. 26.07 소프트뱅크의 Boston Dynamics 잔여 지분 풋옵션 행사가 이뤄졌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26.3Q 예정된 SDV 페이스카 실증 주행 등 현대차의 미래 사업 관련 일정이 26.2H 임박했다. 08.26 그룹사 CID 행사에서의 관련 내용이 시장에 공유될 가능성에 높음에 따라, 해당 행사를 전후로 국내 자동차 섹터 반등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1. 기아 분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율 추이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기아 분기 판매관리비 및 판매관리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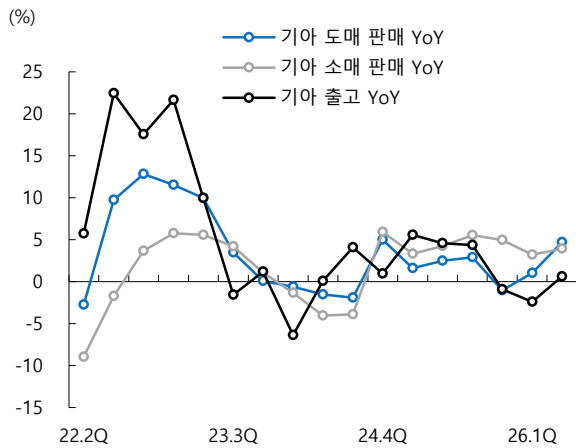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기아 분기 및 연간 실적 테이블

(억원, %)	3Q24	4Q24	1Q24	2Q25	3Q25	4Q25	1Q26	2Q26	2024	2025	2026F
매출액	265,199	271,479	262,130	293,496	286,860	280,880	295,020	330,370	1,074,487	1,141,411	1,248,953
YoY	11.9	3.4	2.6	8.1	8.2	3.5	12.5	12.6	24.1	6.2	9.4
매출총이익	61,397	57,492	62,360	58,754	54,090	51,430	58,040	60,430	247,708	225,081	259,436
YoY	14.3	-5.2	6.4	2.2	-11.9	-10.5	-6.9	2.9	37.4	-9.1	15.3
GPM	23.2	21.2	23.8	20.0	18.9	18.3	19.7	18.3	23.1	19.7	20.8
영업이익	28,813	27,164	34,257	27,647	14,620	18,430	22,050	26,290	126,671	90,782	101,052
YoY	0.3	-20.2	19.6	1.8	-49.3	-32.2	-35.6	-4.9	75.1	-28.3	11.3
OPM	10.9	10.0	13.1	9.4	5.1	6.6	7.5	8.0	11.8	8.0	8.1
세전이익	32,319	24,399	37,845	30,001	18,870	21,110	26,350	30,680	134,963	102,415	116,301
지배주주순이익	22,679	17,393	28,091	22,682	14,220	14,710	18,300	23,280	97,729	75,538	84,339
YoY	7.0	-38.3	26.5	30.4	-37.3	-15.4	-34.9	2.6	80.7	-22.7	11.7
NPM	8.6	6.4	10.7	7.7	5.0	5.2	6.2	7.0	9.1	6.6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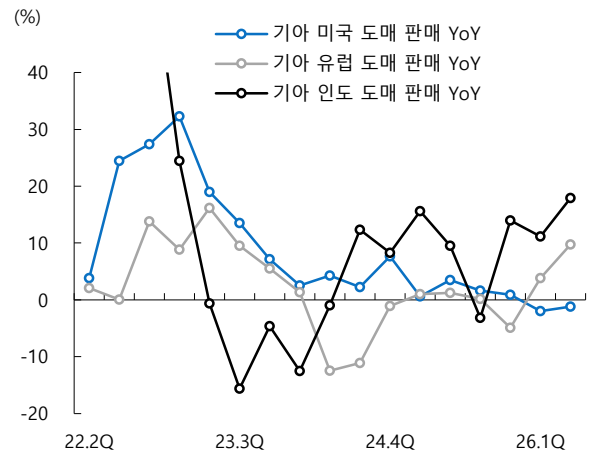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기아 도매 판매, 소매 판매, 출고 대수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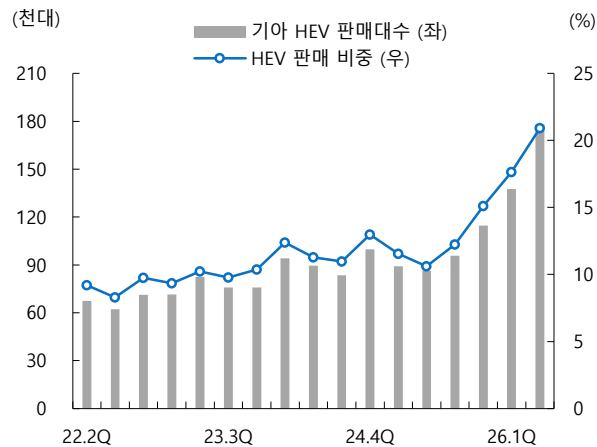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기아 미국, 유럽, 인도 도매 판매 대수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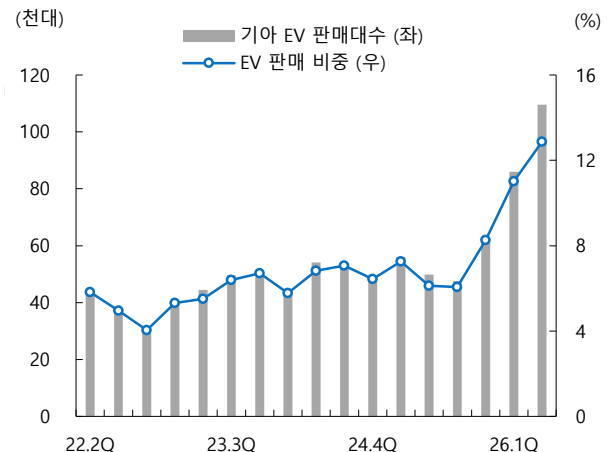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기아 HEV 판매대수 및 전사 판매량 대비 비중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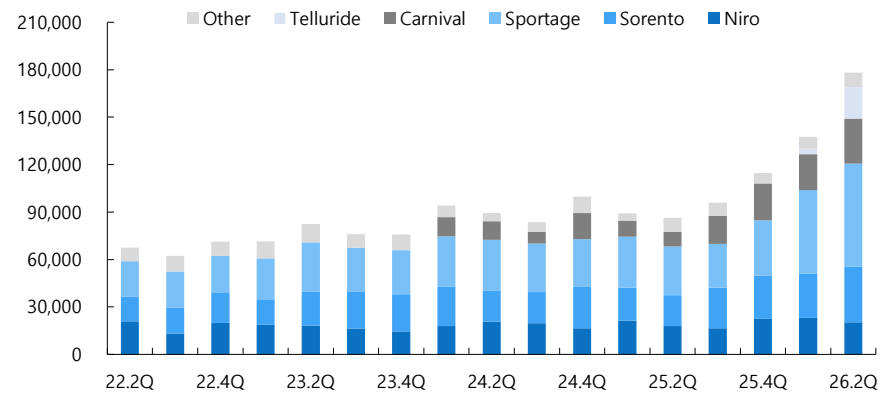
그림7. 기아 EV 판매대수 및 전사 판매량 대비 비중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기아 주요 HEV 차량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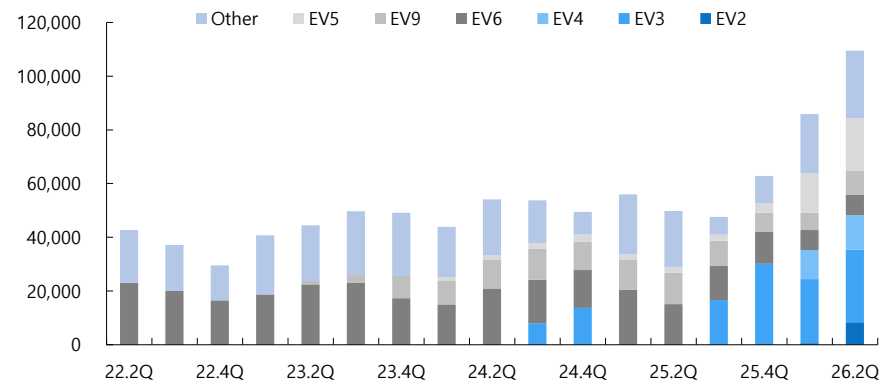
(대)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기아 주요 EV 차량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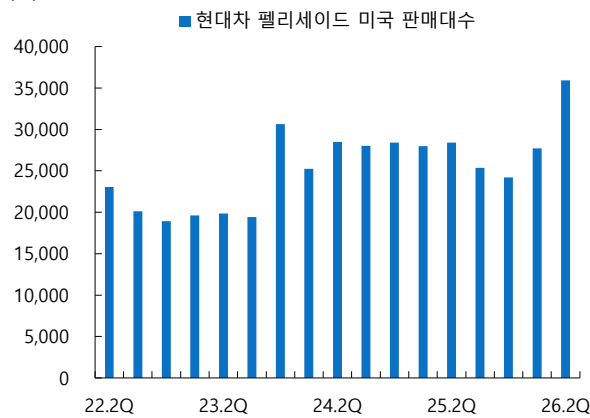
(대)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현대차 펠리세이드 미국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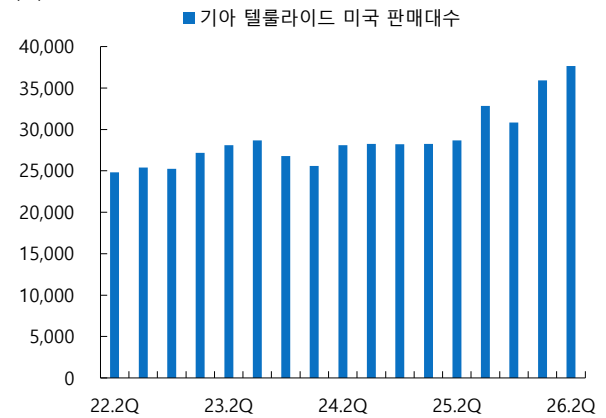
(대)



자료: 현대차,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기아 텔루라이드 미국 판매대수 추이

(대)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CID 행사간 확인된 SDV 및 자율주행, Boston Dynamics 관련 업데이트

KIA 2026 CEO Investor Day 중 SDV/자율주행 관련 질의응답**Q. 자율주행 관련해서 AVP 본부와 nVIDIA 각 주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nVIDIA는 SoC와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 이들을 통해 고객에게 완성차로서 완전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자 함. 양산차에 nVIDIA의 플랫폼을 탑재하고, 고객의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현대차그룹이 보유할 수 있고, 이는 내재화로 연결.

AVP본부와 42dot은 차량 아키텍처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을 담당.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SDV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 42dot과 AVP 본부는 분명히 원팀이나, AVP 본부는 양산에 특화, 42dot은 선행 기술 연구의 역할에 더 집중.

Q. 차종에 따른 자율주행 탑재 계획, nVIDIA와의 협력→Only Vision 중단인지?

nVIDIA의 플랫폼에는 여러가지 센서 구성이 존재하고, 각 센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함. 카메라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단점을 카메라가 보완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Tesla는 Camera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에 집중.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Camera, Lidar, Radar 각 센서의 잠재력을 모두 발현하면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 즉 기존의 Atria AI는 Vision에 집중한 솔루션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센서를 더하는 것뿐, 충돌되지 않는 것. 차량마다 센서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차종별로 자율주행 요구 수준이 다르다면 Lidar를 추가.

Q. 만약 경쟁업체도 nVIDIA의 Alpamayo를 사용한다면 차별점은 어디에서 발생?

Alpamayo 외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업체가 4~5개는 될 것으로 판단됨. SDV로 전환되면서 차량의 주행 및 내부 편의성 기능을 차별화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냐. 많은 시장 플레이어가 L3 이하의 용어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L3 자율주행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 즉 차후에 경쟁 업체간 차이가 눈에 띄는 것은 없겠지만, 결국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따라 차별화될 것. 그런데 단순한 Buy Solution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기아와 같이 자체 개발 역량을 필요로 함.

KIA 2026 CEO Investor Day 중 Boston Dynamics 관련 질의응답**Q. Boston dynamics 양산 개시 시점과 양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양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2028년 3만대 CAPA의 공장 건설 완공 목표. 휴머노이드 생산에 당연히 기아도 참여할 것. 향후 미국, 한국 각 지역의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로봇의 경우 현지 생산을 채택할 예정.

Q. Google DeepMind와의 개발 성과가 있는지, Google과 nVIDIA 시스템간의 충돌은 없는지?

지난 3개월의 기간이 개발 협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함.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초기 아키텍처 설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각 주체 간의 역할 충돌은 없음.

Q. 향후 3만대, 그리고 그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 생산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생산 CAPA가 3만대라는 것. 다만 그룹사 외에도 Boston dynamics의 고객이 발굴될 가능성 존재함. 현대차그룹의 내부 수요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부 고객 찾는 과정의 리스크가 적음. 일단 자동차 생산 공장 내 물류 작업을 먼저 대체할 계획.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물류 산업' 진출이 목표. 결국 의장 라인에 들어가는 것. 분명 의장 공장 안에서도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작업이 있다 (반복, 근골격계에 하중이 가는 작업). 여기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는 것. 결국 경쟁 OEM의 생산 라인도 기아와 동일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Boston dynamics의 확장도 가능.

CID 행사에서 SDV 및 자율주행, 그리고 Boston Dynamics와의 시너지 등에 대한 일부 업데이트는 존재했으나, 절대적인 개발 시간이 부족해 유의미한 성과는 나오기 힘든 시점임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현대차그룹 기업가치 구성요소 및 주요 Multiple 구성 요소의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 있는 26.2H 타임라인

현대차그룹 기업가치 구성요소			각 요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러티브와 모델템		
본업 경쟁력	SDV/자율주행	Boston Dynamics	새만금, 메가프로젝트	nVIDIA 개발	Tesla
내수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nVIDIA 협력 내용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양산형 모델 개발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새만금 프로젝트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nVIDIA 협력 내용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양산형 모델 개발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미국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AVP본부 자체 개발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양산 스케줄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메가프로젝트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AVP본부 자체 개발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양산 스케줄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유럽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결국 미래 사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Boston Dynamics 상장 주요 OEM들의 각 시장 경쟁력의 향방은 1) 전동화, 2) SDV 및 자율주행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기아 CID 2026 26-30 재무 사업 계획 발표 내용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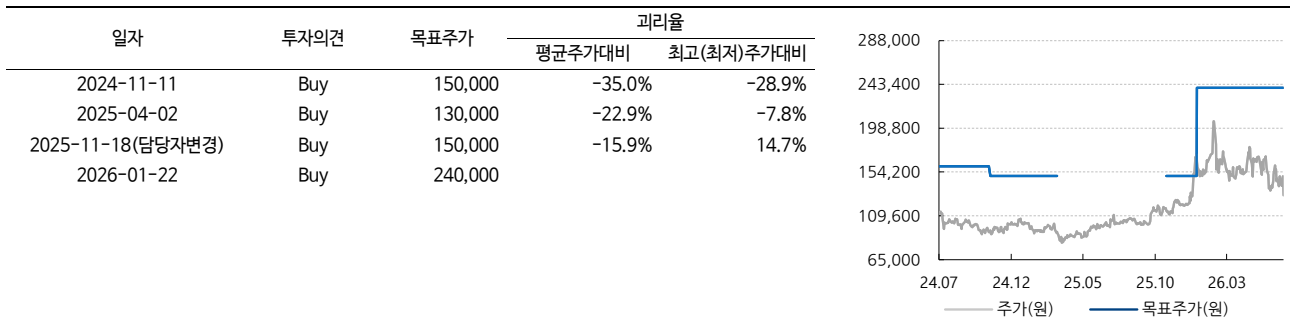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십억원, %)	2025	2026E	2027E	2028E
유동자산	44,426	50,352	55,377	61,562	매출액	114,141	124,895	130,318	137,362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998	17,446	20,982	25,347	증가율(%)	6.2	9.4	4.3	5.4
단기금융자산	8,116	8,522	8,948	9,395	매출원가	91,633	98,952	100,695	100,695
매출채권	7,314	7,970	8,301	8,730	매출충이익	22,508	25,944	29,623	36,667
재고자산	14,666	16,048	16,745	17,650	판매비와관리비	13,430	15,838	18,636	24,505
비유동자산	54,553	56,910	60,686	64,930	연구개발비	2,142	2,344	2,445	2,578
유형자산	19,934	20,831	23,075	25,713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4,806	5,002	5,207	5,420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98,979	107,262	116,063	126,492	영업이익	9,078	10,105	10,987	12,162
유동부채	28,378	30,405	32,417	35,142	증가율(%)	-28.3	11.3	8.7	10.7
매입채무	10,662	11,667	12,173	12,831	영업이익률(%)	8.0	8.1	8.4	8.9
단기차입금	211	201	191	181	이자수익	949	1,114	1,284	1,491
유동성장기부채	1,154	1,154	1,154	1,154	이자비용	75	69	65	61
비유동부채	9,410	8,921	8,486	8,096	지분법이익(손실)	415	436	458	480
사채	979	783	627	501	기타영업외손익	26	56	56	56
장기차입금	-	-	-	-	세전계속사업이익	10,241	11,630	12,380	13,587
부채총계	37,789	39,327	40,903	43,238	법인세비용	2,687	3,256	3,466	3,804
지배주주지분	61,188	67,933	75,158	83,251	세전계속이익률(%)	9.0	9.3	9.5	9.9
자본금	2,139	2,139	2,139	2,139	당기순이익	7,554	8,434	8,913	9,782
자본잉여금	1,771	1,771	1,771	1,771	순이익률(%)	6.6	6.8	6.8	7.1
이익잉여금	54,520	60,428	66,815	74,072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7,561	8,434	8,913	9,782
기타자본항목	2,758	3,595	4,432	5,269	기타포괄이익	837	837	837	837
비지배주주지분	3	3	3	3	총포괄이익	8,391	9,271	9,751	10,620
자본총계	61,190	67,936	75,160	83,254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2025	2026E	2027E	2028E
영업활동 현금흐름	9,054	14,254	15,856	17,680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7,554	8,434	8,913	9,782	EPS	19,111	21,603	22,831	25,05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070	2,674	2,875	3,379	BPS	156,726	174,003	192,508	213,239
무형자산상각비	644	757	788	821	CFPS	25,971	30,390	32,214	35,814
지분법관련손실(이익)	415	436	458	480	DPS	6,800	6,500	6,500	6,500
투자활동 현금흐름	-4,960	-5,667	-7,339	-8,365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3,593	-3,570	-5,119	-6,017	PER	6.4	6.0	5.7	5.2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1,226	-953	-993	-1,034	PBR	0.8	0.7	0.7	0.6
금융상품의 증감	-1,046	-1,264	-1,327	-1,394	PCR	4.7	4.3	4.1	3.6
재무활동 현금흐름	-4,175	-2,925	-2,768	-2,737	EV/EBITDA	2.4	2.0	1.6	1.1
단기금융부채의증감	-10	-11	-10	-10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830	-196	-157	-125	ROE	12.9	13.1	12.5	12.4
자본의증감	-	-	-	-	EBITDA이익률	10.3	10.8	11.2	11.9
배당금지급	-2,559	-2,642	-2,526	-2,526	부채비율	61.8	57.9	54.4	51.9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432	3,448	3,535	4,365	순부채비율	-32.3	-35.1	-37.2	-39.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567	13,998	17,446	20,982	매출채권회전율(x)	15.8	16.3	16.0	16.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3,998	17,446	20,982	25,347	재고자산회전율(x)	8.4	8.1	7.9	8.0

자료 :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